



# 학생인권과 교권 관계에 관한 다각적 접근:

2022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김종우(연세대 사회학과 BK21교육연구단)
- 김위정(경기도교육연구원)
- 이가람(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 목차

01

연구 배경

02

자료와 방법

03

주요 결과

04

논의

# 연구질문과 배경

정책목표

05

정책과제 5-2.

## 튼튼한 교원 보호 시스템 구축

5-2-1.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5-2-2. 부당한 민원 대응 교사보호 시스템 도입

5-2-3.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과제 5-2-1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 » 과제목표

-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교육환경 조성
-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상호존중 및 인권 증진

### » 주요내용

- (조례 개정) 학생인권 및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학생의 책임 강화를 통하여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존중할 수 있는 조례 개정방안 연구
  -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적인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및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의 교권보호)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의 교권보호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포함한 학교규칙 준수, 타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책무성 함양에 대한 학생생활교육 실시
  - (가칭)학생생활교육법률 제정 과정에 적극적 참여
  - 타 학생에 대한 학습권 침해 학생의 교실 일시 분리 방안 마련

### » 추진시기

- 2022. 하반기 학생인권 조례 개정방안 연구 추진
- 2023. ~ 학생인권과 교권 간 균형을 고려한 조례 개정 추진

# 연구질문과 배경

-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가?

- 학생은 교권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 <2021년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 조사>에서는 상호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교직원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음. 조사 결과, 학생들은 대다수(94%)가 학생들이 교직원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응답한 반면, 교원들은 학생들이 교직원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초 15.9%, 중 23.5%, 고 31.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김위정 외, 2021)

- 모든 구성원들의 권리가 존중 받을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짐(권순정·오덕열, 2021).
- 이를 위해서 학교구성원들의 학생인권과 교권의 개념에 대한 인식,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할 필요
- 교권존중 수준은 학생의 인권존중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학생이 인권을 존중 받는다고 인식할수록) 일수록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해보고자 함.

# 기존의 논의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 제4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 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이하 "경영자"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교장 등"이라 한다),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 ④ 교육감과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 <교육기본법>

- 제2장 교육당사자 <개정 2007. 12. 21.>
-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개정 2021. 9. 24.>
-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7. 12. 21.]

# 기존의 논의

## • 대립적 관점

- 정치 담론, 미디어
- 학생 인권에 의한 교권의 침해
- 학생 인권과 교권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권리 충돌 사례
- 학생-교원 갈등을 유발하는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및 폐지
- 학생인권과 교권은 '균형'을 이루어야 함

## • 상호보완적 관점

- 학계
- 학생 인권은 결국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보편적 권리에 관한 문제
- 교권은 법적으로 부여된 교사의 권위로서 공권의 성격
- 학생-교원 등 교육 행위자 사이의 숙의가 필요한 쟁점이며, 교육 행위의 모든 책임을 일선 교원에게 전가하는 현행 교육 제도의 문제이지 인권 자체의 문제가 아님

# 자료와 방법

- 경기도에서는 2010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이래 **2011년부터 매년 학생인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실시**
- 2022년에도 학생 인권과 관련된 최근 이슈들을 반영하여 문항을 수정·보완. 특히, 민선5기 경기도교육감이 새롭게 선출되어 나타난 정책 변화를 반영
-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는 여건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 조사를 시행함. 오프라인 종이 설문지(PAPI)가 응답률이 더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프라인 조사가 어려워 온라인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음.

# 자료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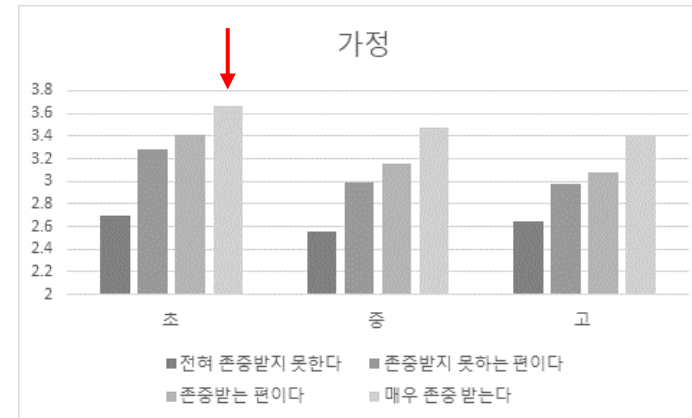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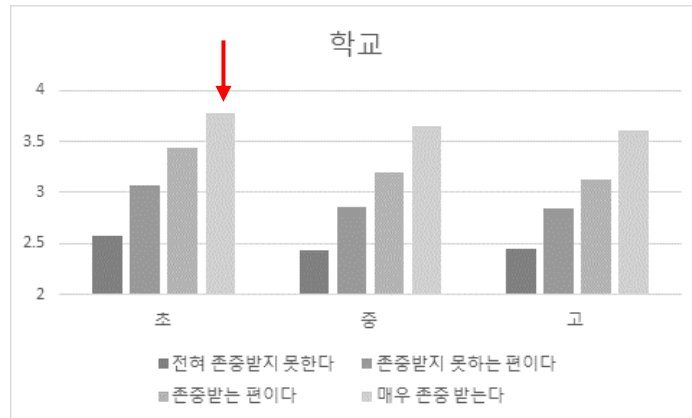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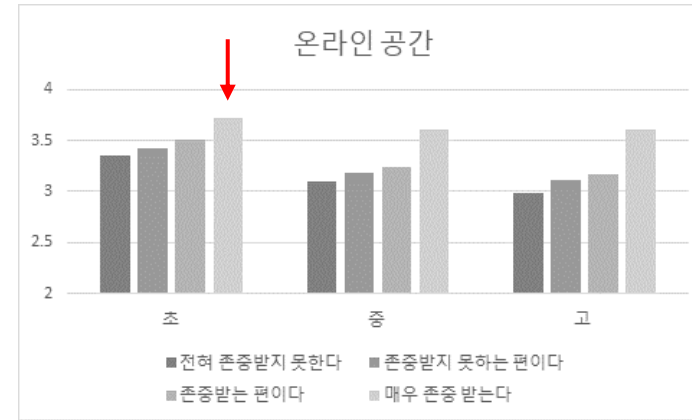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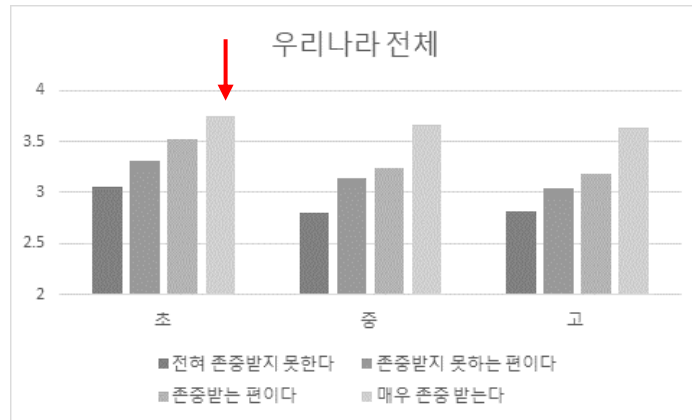
- 조사규모는 경기도내 약 30% 학교 700개교(초 300개, 중 200개, 고200개)를 표집하였으며, **약 19,000여명의 학생이 참여**
- 2020년까지 조사대상 학년은 초등학교 3,5학년, 중2학년, 고2학년이었지만, 2021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은 응답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음.
- 본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300개, 중학교 200개, 고등학교 200개 학교를 표집하여, 학생, 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2022.11.7.(월).~18(금) 기간 동안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 학년은 2021년과 동일하게 초5, 중2, 고2를 대상으로 하였음.**



# 자료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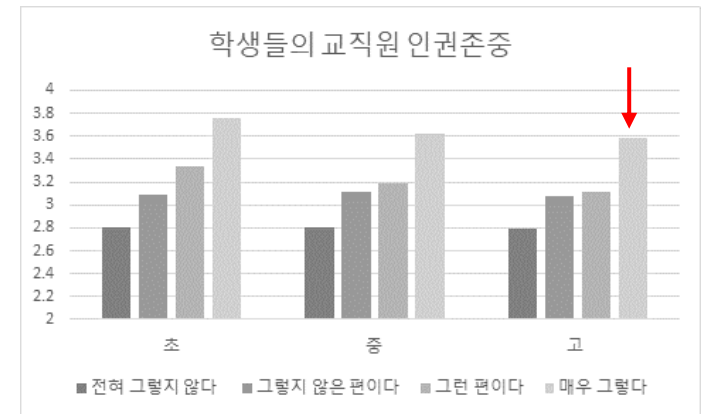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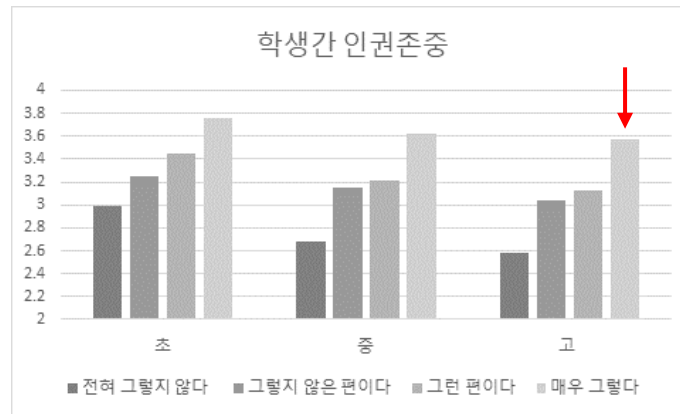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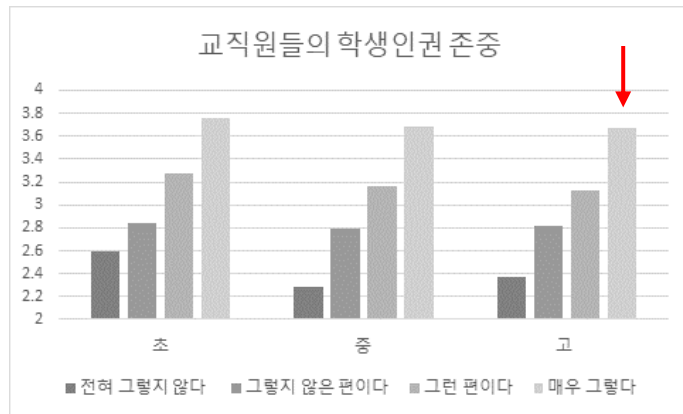
범주	변수명	변수설명	문항 번호 (학생용기준)
종속변수	교권존중수준	교사의 수업 방법, 생활지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 수준(4점 척도), 3개 문항의 평균	4번
배경변수	성별	여성:1, 남성 및 응답거부:0	별도 생성
	지역	도시(동):1, 비도시(읍면): 0	별도 생성
	취약계층 여부	빈곤가정, 다문화탈북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장애인, 운동선수 :1, 기타:0	별도 생성
학생인권과 교권에 관한 변수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에 관한 인식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향상되면 교권 보호도 증진될 것이다(4점 척도)	3-1번
	학생 권리 제한	학생의 인권은 학교 안의 학생, 교사의 관계 속에서 제한될 수 있다(4점 척도)	3-3번
	인권조례 인지 여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인지 여부 (모른다 = 0, 안다 = 1)	6번
	인권조례 효용 인식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인식(4점 척도)	6-1번
	학생책무조항 인식	학생인권조례의 제4조 학생 책무에 관한 조항을 알고 있는지에 관한 여부(모른다 = 0, 안다 = 1)	7번
	학생책무조항 태도	학생 책무조항에 대한 동의 정도	7-1번
	인권관련 활동 수준	학생의 책무 지키기 활동 수준 (6개 문항 평균)	7-3-1~6번
	인권존중 수준 인식	가정, 학교, 우리나라, 온라인 공간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4점 척도), 4개 문항 평균	8번
	교내인권존중인식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직원 상호 간의 인권 존중 수준(4점 척도), 3개 문항 평균	9번

# 주요 결과



나의 인권존중 수준에 따른 교권 존중 수준

# 주요 결과



학교구성원간 상호인권존중 수준에 따른 교권 존중 수준

# 주요 결과: 교권 존중에 대한 인식

종속변수: 교권 존중에 대한 인식 (N=19,061)		B (SE)	$\beta$	t	VIF
학생 권리와 교권	학생인권-교권관계	.099*** (.030)	.118	19.313	1.169
	학생권리제한인식	.063*** (.005)	.088	15.228	1.048
	인권존중수준인식	.144*** (.004)	.130	17.741	1.707
	교내인권존중인식	.253*** (.008)	.252	31.806	1.983
	인권관련활동	.165*** (.008)	.148	19.895	1.748
	인권조례효용	.059*** (.005)	.074	11.042	1.430
	조례인지	.021** (.007)	.018	3.060	1.114
	책무조항인지	-.030*** (.008)	-.023	-3.896	1.120
	책무조항태도	.079*** (.006)	.081	12.273	1.363
학교급	중학교	-.096*** (.008)	-.084	-12.396	1.463
	고등학교	-.135*** (.009)	-.102	-14.885	1.484
배경변수	성별(여성)	.028*** (.006)	.025	4.393	1.019
	지역(도시)	-.002 (.008)	-.001	-.251	1.027
	취약계층	.004 (.010)	.002	0.417	1.011
모형설명		R2 = .397 Adjusted R2 = .396 F = 894.306*** Dubin-Watson 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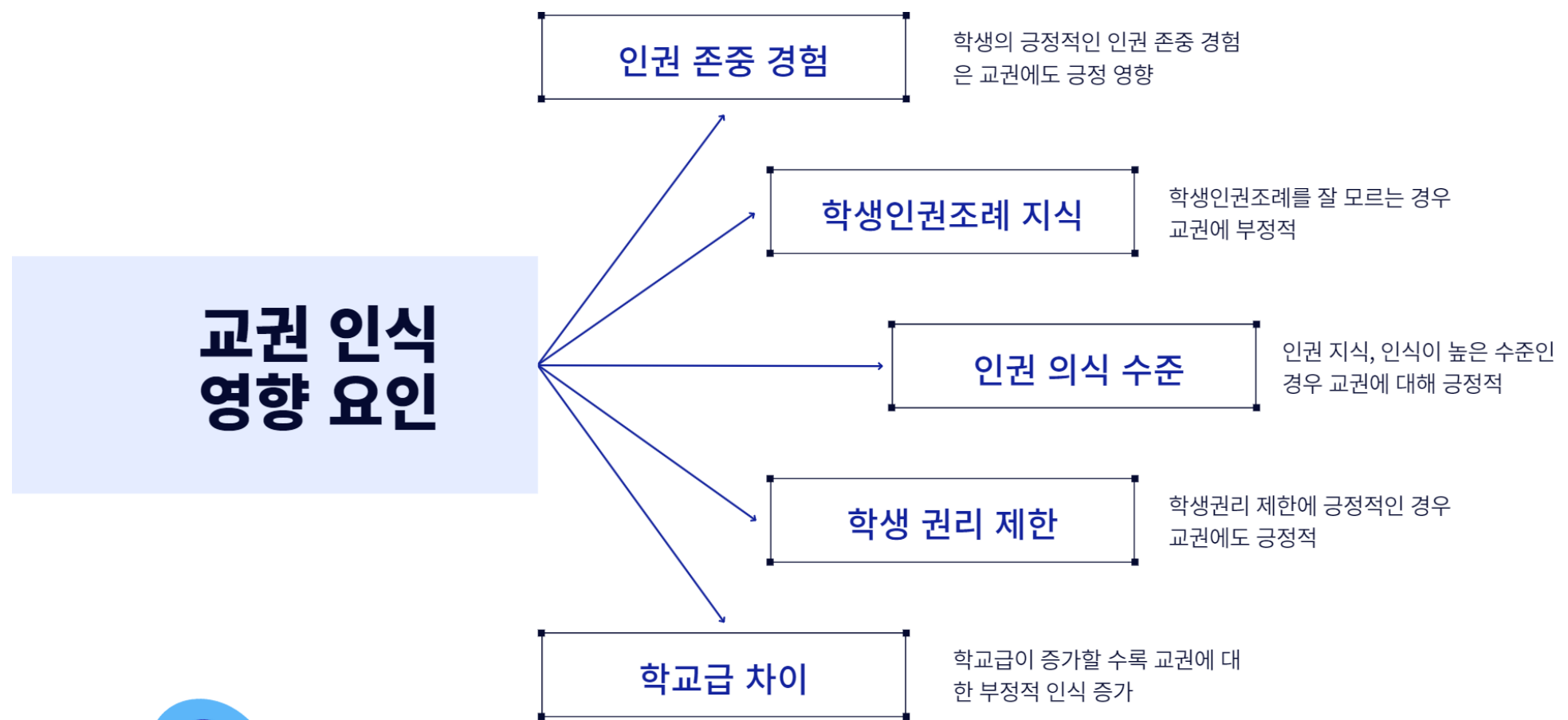
-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를 상보적이라고 인식할수록,
- 학생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인식할수록,
- 학교 구성원 간에 상호인권 존중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인권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 = 교권 존중 수준이 높음
-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초등학생과 비교하면 교권 존중 수준 감소
- =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부정적 인권 존중 경험의 증가?  
(추후 추가적 논의 필요)

# 주요 결과

변수		초등학생(n=6,069)		중학생(n=8,405)		고등학생(n=4,587)	
종속변수: 교권 존중에 대한 인식		B (SE)	β	B (SE)	β	B (SE)	β
학생 권리와 교권	학생인권-교권관계	0.120*** (0.010)	0.140	0.087*** (0.008)	0.105	0.096*** (0.010)	0.126
	학생권리제한인식	0.056*** (0.007)	0.081	0.052*** (0.006)	0.073	0.086*** (0.008)	0.126
	인권존중수준인식	0.109*** (0.014)	0.102	0.149*** (0.013)	0.137	0.182*** (0.016)	0.170
	교내인권존중인식	0.300*** (0.014)	0.294	0.222*** (0.012)	0.224	0.244*** (0.016)	0.242
	인권관련활동	0.144*** (0.015)	0.132	0.200*** (0.013)	0.180	0.132*** (0.016)	0.120
	인권조례효용	0.040*** (0.010)	0.050	0.062*** (0.008)	0.076	0.072*** (0.010)	0.096
	조례인지	-0.005 (0.012)	-0.005	0.035*** (0.010)	0.031	0.027* (0.013)	0.025
	책무조항인지	-0.031* (0.013)	-0.026	-0.022 (0.012)	-0.017	-0.040** (0.015)	-0.032
	책무조항태도	0.058*** (0.011)	0.062	0.097*** (0.010)	0.099	0.078*** (0.013)	0.080
배경변수	성별(여성)	0.05*** (0.011)	0.047	0.019 (0.010)	0.017	0.009 (0.013)	0.009
	지역(도시)	0.058** (0.017)	0.035	-0.032** (0.011)	-0.025	0.010 (0.015)	0.008
	취약계층	-0.009 (0.018)	-0.005	0.015 (0.015)	0.009	0.003 (0.019)	0.002
모형설명		R2 = .342 Adjusted R2 = .341 F = 262.720*** Dubin-Watson 1.905		R2 = .375 Adjusted R2 = .374 F = 419.750*** Dubin-Watson 1.973		R2 = .381 Adjusted R2 = .379 F = 234.345*** Dubin-Watson 1.961	

- 학교급에 따른 분석 결과도 앞선 분석과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드러남
- 먼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 여부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만 교권 존중 수준에 정(+)의 상관성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학생책무 조항에 대한 인지 여부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표본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며, 교권 존중 수준에 부(-)의 상관성
- 학생책무 조항을 알고 있는 경우 교권 존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추정

# 주요 결과



# 논의와 결론

- 주관적 인권 존중 경험이 자신을 포함한 **타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인식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함
- 이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는 결과
- 서베이를 토대로 진행된 기존 연구 중 상호보완적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구정화 2014a;2014b 등)



-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단순히 학생 책무를 강조하는 방향보다는 학생인권의 보장을 통해 인권의 보편적 성취가 가능하다는 점을 학교, 가정 등 일상에서 환기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인권을 학습하기 위한 토대가 결국 학생 스스로가 권리 주체로서 존중 받는 경험에서 출발해야 함을 보여줌**

# 논의와 결론

- 이러한 점에서 학생인권만이 아니라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한 인권개념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
- **학생인권과 교권을 분리하여 다루기보다는 우선 교내에서의 긍정적 인권 존중 경험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학생들에게는 교권 존중의 의무와 함께, **학생과 교사의 상호 존중에 기초한 수평적 문화 조성도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함**

-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교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인권 존중 경험을 높일 방안과 함께, 학교급에 따른 인권 교육내용의 차별화가 필요함**을 확인
- 결국 권리 주체로서의 긍정적 경험이 학습 수준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유형,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에, 이에 관한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함도 확인하였다.





# 감사합니다.

---



김종우(연세대 사회학과 BK21 연구교수)



copy3@yonsei.ac.kr



<https://sites.google.com/view/jongwoo-kim>